

문법화를 통해 형성된 ‘下來’ 의미의 점이적 특성 분석

유수경*

◁목 차▷

- I. 서론
 - II. 문법화를 통해 형성된 ‘下來’ 의미
 - III. ‘下來’ 의미와 관련요소 분석
 - 1. 동사의 상황상
 - 2. 부사어의 상 정보
 - IV. ‘下來’의 점이적 의미형성에 관한 인지적 해석
 - V. 결론
-

I. 서론

문법화(grammaticalization)란 범언어적인 언어현상으로서 의미적으로 완전한 내용어가 문법기능을 주로 하는 기능어로, 혹은 덜 문법적인 성분이 더 문법적인 성분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문법화 현상은 통시적인 언어변화 과정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공시적인 각도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현대 중국어에도 문법화와 관련된 언어현상들이 다수 발견되는데 이 중에서 방향보어는 문법화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범주라 할 수 있다. 특히 ‘起’, ‘起來’, ‘下去’는 공시적으로 방향이동 의미부터 상 표지에 상응하는 기능까지 나타나고 있어 방향보어 중 가장 문법화가 심화된 부류이며 심지어 상(aspect) 표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반해 본고의 연구대상인 ‘下來’는 의미와 기능이 상술한 방향보어에 비해 덜 주목받는데 이는 ‘下來’가 가지는 의미와 기능의 모호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 (1) 和這樣的女人怎麼生活下去呢? 怎樣愛下去呢?
이런 여인과 어떻게 생활해 나가겠는가? 어떻게 (계속) 사랑하겠는가?
- (2) ?我們就這樣生活下來了, 這樣愛下來了。
우리는 이렇게 생활해 왔고 이렇게 사랑해 왔다.

상술한 예문(1)의 ‘下去’는 ‘活’, ‘愛’와 결합하여 향후 해당 상태의 지속을 표현하는데 이는 방향보어가 문법화를 통해 형성한 상 기능 중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반면 예문(2)의 ‘下來’는 ‘活’와 공기하여 현재까지의 지속을 표현하지만 ‘愛’와의 결합에서는 어색함을 보인다. 이는 ‘下來’가 외형적으로나 어휘적 의미에서 ‘下去’와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지만 문법화를 통해 형성된 의미 측면에서 비대칭적인 양상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下來’ 의미의 모호성은 동일한 동사와 결합하는 아래 두 예문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아래 예문(3)과 (4)는 모두 동사 ‘住’와 ‘下來’의 결합이지만 각각의 ‘下來’는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 (3) “這兒是你的家, 好壞都是自己人, 總比在別人家中遭受白眼好得多, 你就住下來吧!”
“이 곳은 너의 집이다. 좋은 나쁜든 모두 한 식구니 다른 사람 집에서 구박받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여기에 머물러라!”
- (4) 几十年住下來, 院子里翻修改建過几回, 越改越寒酸。
몇 십년간 살면서 집을 몇 번 수리했지만 고칠수록 더 초라해 갔다.

예문(3)은 상대에게 머물 것을 권하는 문장으로 여기에서 ‘下來’는 ‘住’라는 행위의 완성과 그로 인해 자연적으로 수반되는 활동적 상태에서 고정적 상태로의 변화¹⁾를 표현한다. 반면 예문(4)의 ‘下來’는 몇 십 년 전부터 화자의 참조점까지 ‘住’라는 행위(상태)가 지속되어 왔음을 묘사하는 것으로 앞서 예문(1)의 ‘下去’ 의미와 대칭을 이룬다. 이처럼 동일한 동사와의 결합에서 문맥에 따라 ‘下來’가 가지는 중의성은 중국어 교학과정에조차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상술한 현상들은 ‘下來’가 외형적으로나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어휘의미²⁾ 측면에

1) 기점(위)에서 종점(아래, 대부분 지면)에 닿아 이동이 종결되는 ‘下’의 어휘의미의 영향을 받아 동적상태에서 정적상태로 고정되는 의미를 내포한다.

서 ‘下去’와 대칭적 구조를 이루는 것과 달리 문법화를 통해 형성된 의미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며, 심지어 일부 ‘V下來’ 구조는 중의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본인은 유수경(2011)에서 ‘下來’의 의미를 문법화 정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분류하고 이를 통사적인 특성인 ‘來’의 부가가 수의적인 부류와 필수적인 부류로 연결시켜 설명한 바 있다³⁾. 여기에서 ‘來’의 부가가 수의적인 부류 내부의 접이적인 의미단계를 논하였으나, 수의적인 부류와 필수적인 부류 간 경계의 모호성이나 동일한 ‘V下來’ 구조가 문장에 따라 중의성을 지니는 현상까지 세밀한 분석을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이를 보완하고자 문법화를 통해 형성된 ‘下來’ 의미 중에서 상적 의미의 경계와 중의성에 포커스를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下來’ 뿐 아니라 다른 방향보어의 문법화 과정이 지니는 보편적 특성을 이해하고 중국어 교학분야의 난제인 방향보어 의미의 체계적인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II. 문법화를 통해 형성된 ‘下來’ 의미

최초의 방향보어 의미 연구는 결합성분의 의미에 따른 분류가 다수를 차지하며 대부분 인신(引申)이라는 개념으로 의미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분류경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劉月華(1998)의 분류법을 들 수 있다. 劉月華는 방향보어의 의미를 허화단계에 따라 이동, 결과, 정태의미로 분류⁴⁾하였는데 이 분류법은 이후 방향보어의 의미 분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劉月華의 분류는 방향보어의 의미변화가 발생한 근본적인 기제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유수경(2011)은 Langacker(1999)의 윤곽과 바탕 개념을 이용하여 방향보어 의미의 생성 기제를 인지적으로 접근하였는데 위에서 아래로 이동을 나타내는 ‘下來’의 이동 과정 중 어느 한 부분에 윤곽을 부여함으로써 ‘下來’ 의미 변화를 유발한 인지적 기

2) 문법화가 진행되기 이전 내용어 상태의 의미, 즉 이동 방향을 묘사하는 의미를 말한다.

3) 후자가 본고에서 말하는 ‘下來’의 행위나 상태의 지속을 묘사하는 의미에 해당한다.

4) 이동의미(位移意義)은 공간적인 이동방향을 묘사하며 결과의미(結果意義)는 동작의 결과가 나타나거나 목적을 달성함을 묘사한다. 정태의미(情態意義)는 동작이나 상태가 시간상으로 전개된 경우를 말한다.

제를 찾으려 했다. 즉, 기점(起點)에 윤곽이 부여된 경우 아래 예문(5)처럼 ‘脫’, ‘切’ 등 분리의미의 동사와 결합하여 본체로부터의 분리를 묘사 한다⁵⁾.

- (5) “請您幫我把靴子脫下來!”
“내가 장화 벗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반면 종점(終點)에 윤곽이 부여될 경우 아래 예문들처럼 행위나 상태의 완성의 미⁶⁾를 가진다. 혹자는 이를 결과의 출현이나 목적의 달성 등 다양한 의미로 분리하여 마치 다수의 의미가 존재하는 듯 설명하지만 이는 결합성분의 특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寫’, ‘畫’, ‘辦’ 등 행위의 종결점에 도달하면 결과물이 생성되는 동사의 경우 행위 완성과 더불어 결과의 출현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고, 주어의 의지를 내포한 자주동사(自主動詞)의 경우 행위의 완성이 곧 목적의 달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고는 이들을 완성의미로 통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아래 예문(6)은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행위가 실현됨을, 예문(7)은 차를 정지시키는 행위의 완성, 즉 차가 정지(고정)됨을 묘사한다. 또한 예문(8)처럼 행위의 완성과 함께 자연스럽게 결과물이 출현하기도 한다.

- (6) 只要交錢、交照片，一個月左右，護照、簽證就可以辦下來。
돈과 사진을 내고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7) “咱把車停下來吧，看樣子，那警察是不追上我們誓不罷休了!”
“우리 차를 세우자. 보아하니 저 경찰은 우리를 따라 잡지 않으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8) 几經波折，吳莉的城市戶口終於辦下來了。
몇 번의 어려움을 겪고 나서 마침내 우리(吳莉)의 도시호적이 나왔다.

완성이라는 의미 측면에서 ‘下來’는 완료상 표지인 ‘了’와 비교될 수 있다. 완료상은 해당 행위를 하나의 전체로 보아 행위의 완료를 표현하며 행위의 내부진행과정은 관여하지 않는다. 반면 ‘下來’는 행위의 내부과정이 해당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

5) 분리의미는 대상(Theme)논항의 공간적 이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방향보어 본래의 방향, 이동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 본고의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6) 본고에서 말하는 완성은 반드시 행위의 완료를 내포하지는 않으며 해당 행위를 취하여 행위가 실현되었음을 의미한다.

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아래 예문(9)에서 ‘停下來’는 기차가 멈추는 행위의 완성을 묘사하지만 동시에 멈추는 과정을 배경정보로 내포하고 있어 ‘徐徐地’라는 부사어의 수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예문(10)의 ‘了’는 행위의 완료만을 나타내며 그 내부 진행과정에 관해서는 거론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의 진행과정을 묘사하는 ‘徐徐地’와 함께 사용될 경우 비문이 된다.

- (9) 不到九点, 專列進入湯陰站后, 徐徐地停了下來。
 9시가 못 되어 전용열차는 탕인(湯陰)역에 들어선 뒤 천천히 멈췄다.
 (10) *不到九点, 專列進入湯陰站后, 徐徐地停了。

‘下來’의 완성의미와 달리 행위나 상태의 지속의미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의 견해차가 존재한다. 趙元任(1968), 呂叔湘(1982), 王力(1985), 陳平(1988), 戴耀晶(1997)등은 ‘下去’를 지속태(繼續態)라고 하여 상 표지의 범주에 포함시켰지만 ‘下來’는 상 표지로 보지 않았다. 劉月華(1998)도 ‘下去’와 달리 ‘下來’는 정태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下來’가 ‘下去’의 지속의미에 대응되는 상적인 기능을 가지지 않거나 불완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張誼生(2000)은 ‘下去’와 함께 ‘下來’를 상 표지로 보았으며 房玉清(2001)도 두 성분을 모두 동태조사(動態助詞)로 분류하여 ‘下來’의 상 기능을 인정하였다. 盧英順(2000)은 ‘下來’와 ‘下去’를 연속태(連續態)라고 하여 지속태의 하위범주에 귀속시키며 ‘下來’가 가지는 상 기능을 인정하였다⁷⁾. 이처럼 ‘下來’의 지속의미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차가 존재하는 것은 ‘下來’가 가지는 지속의미의 지위가 확정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3장에서는 ‘下來’가 문법화를 통해 형성한 의미들 중에서 완성의미와 지속의미의 비교를 통해 이들 의미의 특성과 의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장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7) ‘下去’의 지속의미는 화자의 참조점을 기준으로 행위(상태)의 지속을 묘사하며 행위의 시점정보인 시제와는 무관한데 이는 상표지가 가지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일반적으로는 현재를 참조점으로 보아 현 시점부터 향후 미래로의 행위지속을 묘사하지만 ‘如果我當時一直担心下去的話, 恐怕再也不可能做到這一点了.’와 같이 참조점이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下來’ 역시 대부분 현재를 참조점으로 하지만 미래의 시점이 참조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제와 무관한 상표지의 특징을 지닌다.

Ⅲ. ‘下來’ 의미와 관련요소 분석

본고는 문법화를 통해 형성된 ‘下來’ 의미를 분석하기 위하여 ‘下來’와 비이동동사⁸⁾와의 결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할 결합성분의 범위는 1차적으로 房玉清(2001)의 방향보어별 결합성분표에서 동태조사(動態助詞)⁹⁾ ‘下來’와 결합하는 것으로 분류된 483개 동사로 선정하였다. 이들 동사와 ‘下來’의 실제 결합여부 및 예문 확보를 위해 해당 동사와 ‘下來’의 결합을 북경대학교 중국어언학연구중심의 말뭉치자료(CCL)를 통해 확인과정을 거쳐 예문이 존재하는 203개 동사(예문 3,382개)를 ‘下來’와 결합하여 문법화 된 의미를 형성하는 결합성분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1. 동사의 상황상

본고는 ‘下來’가 가지는 의미 경계의 모호성이나 중의성이 주로 결합동사의 특성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 우선적으로 동사의 상황상을 위주로 ‘下來’ 의미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상황상(situation aspect)이란 Smith(1991)의 상 분류¹⁰⁾ 중 하나로 상 표지를 제외한 어휘내용이 갖는 상 정보를 말한다. Vendler(1997)는 [±지속성], [±종결성], [±동태성]의 자질에 따라 동사의 상황상을 상태, 동작, 성취, 달성동사로 분류하였다. Smith(1991)은 여기에 순간동사를 추가하였으며 Xiao&McEnery(2004)는 [±결과(Result)]와 [±의존(Bounded)]의 자질을 추가하여 보다 세부적인 분류를 시도하였다. 동사의 상황상에 대한 다양한 분류법 중에서 본고는 이동동사에서 기원한 ‘下來’의 어휘의미를 고려하여 郭銳(1993)의 기준을 이용하였다. 郭

8) 이동동사와의 결합은 절대 다수가 방향보어의 기본적인 이동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본고의 논점인 문법화 된 ‘下來’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행위자나 대상의 이동을 유발하는 이동동사와의 결합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9) 房玉清은 본고에서 말하는 완성과 지속의미의 ‘下來’를 모두 동태조사에 귀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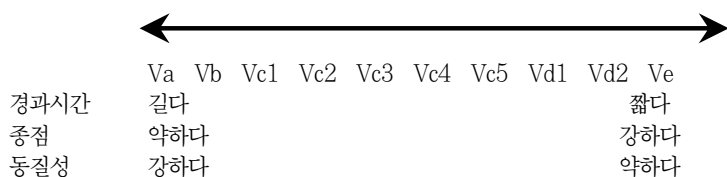
10) Smith(1991)는 문장이 나타내는 상적 정보를 관점상(viewpoint aspect)와 상황상(situation aspect)으로 나누었다. 관점상은 동사의 형태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문법화된 상을 말한다.

銳는 동작이나 상태의 내부구조를 기점, 종점, 경로의 유무와 강약에 따라 몇 가지 부류로 분류하였다.¹¹⁾ 1차적으로 기점과 종점이 없는 무한구조(無限結構/Va), 기점이 있되 종점이 없고 경로가 약한 전한구조(前限結構/Vb), 기점, 종점, 경로가 모두 있는 쌍한구조(雙限結構/Vc), 경로와 종점이 있지만 기점이 없는 후한구조(後限結構/Vd), 동작이 시작과 동시에 바로 종결되는 점구조(點結構/Ve)의 5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항목 중 쌍한구조와 후한구조는 세부적인 차이에 따라 각각 다시 5개(Vc1~Vc5)와 2개(Vd1~Vd2)항목으로 차 분류하였다. 위의 분류법을 기준으로 본고에서 선정한 203개 동사를 분류한 결과는 아래의 표(1)과 같다.¹²⁾

구분	無限	前限	雙限					後限		點	총계 ¹³⁾
	Va	Vb	Vc1	Vc2	Vc3	Vc4	Vc5	Vd1	Vd2	Ve	
수량	0	0	1	10	19	83	56	0	3	3	175

표(1)

위의 표(1)을 살펴보면 결합성분이 Vc1에서 시작되어 점차 증가하며 주로 Vc4, Vc5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Vd나 Ve와의 결합이 소수 존재하는 반면, Va나 Vb의 결합은 전무하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다. 郭銳는 이러한 동사분류가 동사의 내부 경과시간, 종점의 부각, 내부 동질성의 세 가지 각도에서 체계성을 가진다고 서술하였는데 본고에서 이를 정리해 보면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11)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了], [+시량성분], [+着], [+正在/在], [+過]이다.

12) 본 통계수치는 ‘下來’와 결합하는 동사들의 보편적인 경향만을 나타낸다. 실제로 郭銳가 분류한 각 항목의 동사들 중 동사의 의미, ‘下’나 ‘來’의 어휘의미 등의 영향으로 ‘下來’와 결합할 수 없는 동사들도 존재한다.

13) 선정된 동사 중 郭銳의 분류에서 예외로 제외된 동사 28개는 상기 표에서 제외하였다.

문법화를 거쳐 형성된 ‘下來’의 주요 의미가 행위(상태)의 완성임을 고려할 때 중점이 강조되는 동사류와 결합비율이 높은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아래 예문(11)이나 (12)와 같이 경과시간이 존재하는 동사와의 결합하여 해당 행위의 완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지만, 예문(13)나 (14)처럼 경과가 짧거나 기점과 중점이 일치하는 Ve 부류의 동사와 결합하여 행위의 완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 (11) 我相信你一定能够做下來。(Vc4)
나는 네가 틀림없이 해낼 것이라고 믿는다.
- (12) 這些回憶是永遠不會寫下來的。(Vc5)
이 기억들은 영원히 적지 못할 것이다.
- (13) 但因當時時機不成熟，國花沒有確定下來。(Vd2)
그러나 당시 시기가 무르익지 않아 국화를 결정하지 못했다.
- (14) 既然無人反對，事情就這樣決定下來了。(Ve)
기왕 반대하는 사람도 없으니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기점과 중점이 없는 Va(是, 等於, 作爲)¹⁴⁾나 기점이 강한 Vb(知道, 當心), 기점과 경로가 있지만 중점이 약한 Vc1(相信, 懂, 重視)류와는 ‘下來’의 결합이 불가능하거나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분석대상 동사 중 Vc1에 해당하는 결합은 아래 예문(15) 하나에 불과하며 이 역시 완성의 의미가 아닌 지속의미를 나타낸다.

- (15) 因爲一年、二年、三年都是這樣攤下來的，第四年再這樣攤就認爲是“順理成章”了。
첫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모두 이렇게 나누어 분담해 왔기 때문에 네 번째 해에도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듯 여겨졌다.

상기 표(1)의 분류는 ‘下來’ 의미를 완성과 지속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본 결과이다. 기본적으로 행위나 상태의 지속은 해당 행위나 상태가 이루어짐을 전제

14) 괄호안의 동사들은 郭銳 분류의 각 항목 동사 중에서 임의로 제시한 예시로 본고에서 선정한 ‘下來’의 결합동사는 아니다.

로 하기 때문에 지속의미는 대부분 완성의미를 내포하며 이러한 의미적 연관성은 ‘下來’가 가지는 완성과 지속의미의 구분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下來’와 결합하여 지속의미로 해석되는 동사의 경우 공통의 경향성을 지니는데 모두 경과시간이 존재하며 상대적으로 종점이 덜 부각되는 동사라는 점이다. 즉, 경과시간이 비교적 길며 종점이 덜 강조되는 Vc2, Vc3의 동사는 ‘下來’와 결합하여 지속의미를 묘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 (16) 標語的實際功能已經喪失或被取代，它仍然被保持下來，恐怕只是沿襲一種過時的工作習慣而已。(Vc2)
 표어의 실질적 기능은 이미 상실되거나 대체되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어쩌면 구시대적인 업무습관을 답습하고 있는 것뿐인지도 모른다.
- (17) 雖然此次集訓時間長，強度大，但隊員們都頂下來了，沒有出現什麼身體問題。(Vc3)
 비록 이번 집단훈련은 시간이 길고 강도가 강했지만 대원들은 모두 잘 버텼고 어떠한 건강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종점이 강조된 Vd2, Ve 부류는 ‘下來’와 결합하여 지속의미를 나타낼 수 없다. Vc4나 Vc5류의 동사 역시 대부분 ‘下來’가 완성의미로 해석되기 쉬운데 이는 이들 동사가 경과를 가지기는 하지만 종점이 강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과 관련성이 있다. 종점이 강조되기 때문에 ‘下來’와 결합하여 우선적으로 완성의미로 해석되기 쉬우며 지속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대부분 문장 내에 부사어가 공기하고 있었다.

동사 내부의 동질성 측면에서도 ‘下來’와 결합하여 지속의미를 표현하는 동사들은 어느 정도 경향성을 지닌다. 동질성이란 ‘等’과 ‘吃’가 가지는 차이로 ‘等’은 기다리는 행위가 지속되는 동안 동사의 기본적인 속성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동질성이 높다고 보는 반면, ‘吃’는 입을 벌리고 씹고 삼키는 동작들로 분해할 수 있어 행위의 동질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분석 결과 동사의 동질성이 높을수록 ‘下來’ 의미가 지속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며 동질성이 낮을수록 완성의미로 해석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질성이 낮은 동사의 경우 대부분 행위의 변화과정과 함께 종결점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결합동사의 종점, 경과, 동질성 등 상 정보와 ‘下來’ 의미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사의 경과와 종점이 존재하는 경우 ‘下來’와 결합하여 우선적으로 완성의미를 표현하기 쉬우며 이들 동사 중에서 경과가 강조되고 종점이 덜 부각되며 동사 내부의 동질성이 높을수록 ‘下來’와의 결합에서 지속의미를 표현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下來’의 의미가 결합동사의 상황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은 ‘下來’의 문법화 정도가 아직 낮고 상적 의미가 확정적이지 못하여 문장 내 다른 성분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록 결합성분의 상황상은 ‘下來’의 의미결정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유일한 결정적 요소는 아니다. 일부 종점이 강조된 Vc4, Vc5류 중에서도 ‘下來’와 결합하여 지속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下來’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문장 성분으로 부사어의 상 정보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부사어의 상 정보

Whaley(2010)는 유형학적 관점에서 문장의 상 정보를 분석하며 동사범주의 상황상 만이 문장의 상 정보와 관련된 언어요소는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즉, 상의 변화는 부사적 표현, 전치사구, 명사어에 의해서도 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래 예문(18)과 (19)는 동일한 동사 flash를 사용하였지만 각기 다른 상 정보를 나타낸다.

(18) The beacon flashed.

해불이 번쩍였다.

(19) The beacon flashed five times in a row.

해불이 다섯 번 잇따라 번쩍였다.

예문(18)에서 flash는 신속히 완성된 사건을 표현하는 동작동사로 순간상이 된다. 그러나 단일한 순간적 사건이 예문(19)에서는 부가어인 ‘five times in a row’와 공기하면서 반복상을 나타내게 된다. 이와 같이 부가어의 공기로 의미의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은 ‘下來’구문에서도 발견된다.

(20) 不過他還是把一出《得意緣》唱下來了。

그러나 그는 그래도 〈得意緣〉을 불러냈다.

(21) 二是担心她的實力，音樂會上她演唱的几乎都是規模較大的“大歌”，在近兩個小時里，一首接一首地唱下來，還要唱得十分投入，不談別的，光是其体力消耗之大，決不亞於馬拉松長跑比賽。

두 번째는 그녀의 실력이 걱정이다. 음악회에서 그녀가 부르는 곡은 거의 대부분 규모가 큰 ‘대곡’으로 근 두 시간동안 한 곡, 한 곡 이어 불러가야 하며 게다가 매우 집중해서 불러야 한다. 다른 것은 차지하고 체력소모 하나만도 마라톤 시합에 뒤지지 않는다.

위의 예문(20)과 (21)은 동사 ‘唱’과 ‘下來’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형태를 지니지만 의미상으로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예문(20)은 노래를 불러냈다는 행위의 완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21)은 한 곡, 한 곡 불러가는 행위의 지속¹⁵⁾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부사어 ‘一首接一首地’의 영향으로, 동일한 동사와의 결합이지만 (21)의 ‘下來’는 (20)에 비해 그 진행경과가 강조된다. 예문(21)의 의미는 지속되는 행위를 바라보는 시점(참조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예문(22)의 ‘下去’와 행위지속의 측면에서 대칭을 이룬다.

(22) “只要觀眾需要，我就會唱下去的！”

“관중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나는 (계속) 노래할 것이다!”

이처럼 행위나 상태의 경과와 지속을 부각시켜 ‘下來’의 지속의미를 강조하는 부사어로 아래의 몇 가지 부류들 들 수 있다.¹⁶⁾

- ① 부사：一直，繼續，漸漸
- ② 대명사：這麼，這樣
- ③ 수량구：一天，這些年，几篇，几堂，一頓飯，一个个(頁頁)
- ④ 형용사구：徐徐(地)，慢慢(地)
- ⑤ 기타 구조：一个(首)接一个(首)

15) ‘下來’가 나타내는 지속은 하나의 동작이나 상태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지속되는 것 외에 동일한 동작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지속도 포함한다.

16) 각 부류마다 해당 기능을 가진 전형적인 예만을 수록한다.

이들 부사어가 가지는 상 정보는 문장의 중의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결합성분의 특성상 ‘下來’의 의미가 접이적인 경우 부사어의 공기는 ‘下來’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준다. 심지어 ‘躺’과 같이 하향이동의 방향성이 뚜렷하여 공간적 하향이동을 묘사하는 ‘躺下來’ 구조도 아래 예문(23)처럼 부사어가 부가될 경우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 (23) 一天躺下來, 渾身都沒有力氣。
하루를 누워 있으니 온 몸에 기운이 없다.

IV. ‘下來’의 접이적 의미 형성에 관한 인지적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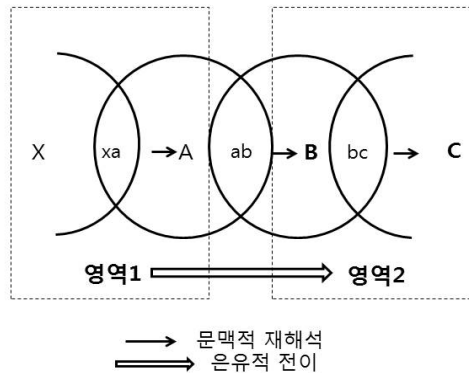
문법화와 관련된 방향보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이동의미와 비이동의미간의 구별은 비교적 명확한 편이다. 그러나 문법화의 진행과정에서 형성된 방향보어의 의미는 추상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명확한 경계 구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下去’와 같이 지속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본고의 연구대상인 ‘下來’처럼 문법화 된 의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문법화가 가지는 연속변이(Cline)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본고는 문법화를 통해 형성된 ‘下來’의 기본의미를 행위의 완성으로 본다. 이는 ‘下來’가 공간적으로 위에서 아래로의 하향이동을 나타내며 그 이동은 지면(혹은 지면에 상응하는 평면)에 닿음으로서 이동이 종결(완성)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법화 정도가 한층 더 심화되면서 출현하는 상적 의미에 있어서 ‘下來’는 ‘下去’와 달리 결합성분이 제한적이고 제약조건이 존재한다. 이는 행위나 상태의 지속을 묘사하는 ‘V下去’와 ‘V下來’구문의 사용빈도 조사에서도 입증되었다. 韓蓉(2004)은 《四世同堂》과 ‘王朔’의 소설 24편을 분석한 결과 ‘下來’와 ‘下去’의 출현 비율이 각각 1:9와 1:3.4 라고 밝힌 바 있으며 유수경(2011)에서도 지속의미 ‘下去’가 ‘下來’보다 높은 비중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이러한 사실은 Bybee &

17) 동일한 수량의 ‘V下去’와 ‘V下來’ 예문 중에서 지속의미 ‘V下去’와 ‘V下來’는 각각 8.3%, 2.9%를 차지하였다.

Pagliuca(1985)에서 지적인 문법화가 진행되어 의미의 특수성이 적어질수록 사용 범위(사용분포)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일반화된다는 주장에 부합한 결과로 사용빈도와 문법화 정도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下來’의 지속의미는 ‘下去’에 비해 사용빈도가 낮을 뿐 아니라 완성의미와 점이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이로 인해 ‘下來’ 의미 경계의 모호성과 중의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고는 일반적으로 공간의 이동과 시간의 흐름이라는 영역간의 은유적 투사관계로 설명되었던 ‘下來’ 의미를 보다 세밀하게 접근한 결과 완성의미와 지속의미 간에 연속성을 지닌 점이적 단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러한 현상을 유발한 인지적 기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 그림(2)은 Heine(1991)¹⁸⁾이 제시한 환유¹⁹⁾-은유모형(Metonymic-Metaphorical Model)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영역간의 이동인 은유적 전이의 배경에는 언어사용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운 점진적인 환유과정인 문맥적 재해석이 존재한다고 한다. 즉, 공간적 이동에서 시간적 흐름으로의 은유적인 투사의 배경에도 사실상 언어적 문맥세계와 인간의 정신세계 속의 인접성에 따른 점이적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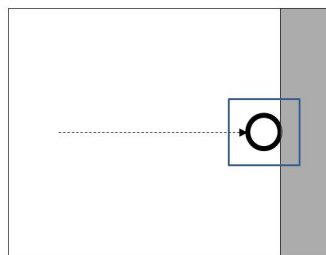
그림(2)

18) 이성하(1998)를 재인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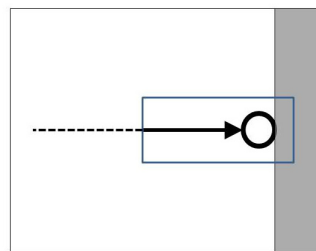
19) Taylor(1989)는 환유(metonymy)는 어떤 방식으로 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해 그 연속성 있는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 쓰는 수사법의 일종이라고 정의하였다.

위 모형에 따르면 ‘下來’의 공간적 이동의미인 ‘X’와 시간상 지속의미인 ‘C’사이에는 이동의 경로와 행위의 경과간의 유사성에 근거한 점이적 변화단계인 ‘xa’, ‘A’, ‘ab’, ‘B’, ‘bc’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이적 단계는 환유의 특성인 인접성(혹은 연속성)에 근거한 문맥적 재해석을 통해 형성된다. 이로 인해 다수 문장의 ‘下來’ 의미가 ‘X’나 ‘C’ 중 어느 한 영역에 귀속하기 어려운 점이적 상태나 중의적인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下來’의 완성의미와 지속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게 되며 일부 동사의 경우 같은 구조에서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문맥적 재해석 과정에서 작용하는 문장 요소로 결합동사와 공기 부사어의 상 정보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있다면 이를 어떠한 문장형태로 발화할 것인지는 인지적인 영역에서 확정된다. 즉, 화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명제를 화용적 목적에 따라 재배치하는데 이때 주요 정보에 운곽을 부여하고 나머지 정보는 바탕으로 삼아 배경정보로서의 역할만을 하게 한다. 완성의미의 ‘下來’에서 행위의 경과는 배경정보로만 작용하고 운곽은 행위의 완성, 즉 이동의 종점에 부여된다. 하지만 문맥적 재해석 과정을 거쳐 운곽의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종점 외에 경과과정에까지 운곽이 부여될 경우 해당 ‘下來’는 지속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인지적 전환을 도식화²⁰⁾하면 아래 그림(3), (4)와 같다.



그림(3)



그림(4)

위의 그림(3)²¹⁾은 종점에 운곽²²⁾이 부여된 형태로 ‘下來’의 완성의미를 도식화

20) 도식화 표기의 편의상 중간의 점이적인 단계를 생략하였다.

21) 문법화 된 ‘下來’는 이미 공간적인 상, 하 개념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시간상의 이해가

한 것이다. 여기에서 점선인 경과(경과)는 완성을 위한 배경정보로만 작용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의미적으로 경과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이는 상 표지 ‘了’나 결과보어 ‘完’, ‘好’등과의 비교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4)은 윤곽과 초점범위가 완성 이전의 지속되어 온 경과까지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참조점 이전 어느 시점부터 참조점까지의 행위나 상태의 지속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성하(1998)는 화용적 추론을 통한 문법소의 의미변화를 설명하면서 본래 어떤 의미만을 가지던 어휘소나 문법소가 본래의 의미 외에 다른 의미가 암시되면 청자는 암시된 의미가 그 언어형태의 의미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실제 의미의 일부가 되어 버린다고 지적하며 이를 함축의 관습화라고 하였다. 문법화를 통해 형성된 ‘下來’ 의미에서 일부 중의적인 문장이 존재하고 점이적인 단계가 나타나는 것은 완성의미와 지속의미 간에 존재하는 점이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下來’가 ‘下去’나 ‘起來’와 달리 문법적인 상 범주로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결합동사와 부사어 등 문장 성분의 상 정보가 ‘下來’의 의미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이러한 성분과의 작용을 통해 ‘下來’ 의미가 경계성을 가지게 된다.

V. 결론

본고는 문법화를 통해 형성된 ‘下來’ 의미의 모호성, 즉 행위의 완성을 묘사하는 경우와 행위(상태)의 지속을 묘사하는 경우의 경계가 불명확하며 심지어 동일한 동사와 결합한 ‘V下來’ 구조가 다른 의미를 가지는 현상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下來’의 결합성분을 분석한 결과 완성의미를 나타내는 결합동사는 주로 경과를 가지면서 중점이 부각되거나 심지어 동작의 시작과 중점이 일치하는 부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부 진행경과가 부각되고 중점이 약하며 동사 내부의 동질성이 높은 경우 지속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의미의 모호성을 구별하거나 중의를 해결하는 요소로 부사어의 상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용이한 좌우 이동구조로 표시하였다.

22) 그림(3), (4)에서 다른 바탕과 두드러지게 굵은 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윤곽이다.

지속의미를 강조하는 부사어와 공기할 경우 해당 'V下來' 구문은 지속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완성의미와 지속의미 간의 점이적인 상태는 기존의 공간영역과 시간영역의 영역간 투사관계인 은유과정으로 설명하던 방식을 재조명한 것으로 본고는 이 사이에 문맥적 재해석, 즉 유사성에 근거한 환유적 과정을 통한 점이적인 전환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본다. 즉, 인지적으로 행위의 완성(이동중점)에 윤곽을 부여했던 완성의미가 그 윤곽이 행위의 경과까지 점진적으로 확장되면서 '下來'의 지속의미가 형성되었으나 상 표지에 비해 그 기능이 불명확하며 이로 인해 공시적으로 동일한 'V下來' 구조에서 두 의미가 공존하거나 경계가 불확실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參考文獻】

- 戴耀晶(1997), 《漢語時体系統研究》, 中國浙江教育出版社.
- 房玉清(2001), 《實用漢語語法》, 北京大學出版社.
- 呂叔湘(1982), 《中國文法要略》, 商務印書館.
- 王力(1985), 《中國現代語法》, 商務印書館.
- 劉月華(1998), 《趨向補語通釋》, 北京語言大學出版社.
-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 張誼生(2000), 《現代漢語虛詞》, 華東師範大學出版社.
- 趙元任(1968), 《中國話的文法》, 中文大學出版社.
- Hopper & Traugott(1999), 《문법화》, 한신문화사.
- Langacker(1999), 《인지문법의 토대》, 박이정.
- Zhong-Hua Xiao & Anthony McEnery(2004), 《Aspect in Mandarin Chinese》, John Benjamin Publishing Co.
- 郭銳(1993), 〈漢語動詞的過程結構〉; 《中國語文》第6期.
- 盧莉(2006), 〈趨向補語“下”的語法化過程及相關句法語義問題研究〉; 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盧英順(2000), 〈現代漢語中的延續體〉; 《安徽師範大學學報》.
- 이은수(2006), 〈중국어의 상황상 연구〉; 《중국어학논총》 제 26기.
- 유수경(2011), 〈현대 중국어 '下(來/去)'의 의미·통사적 특성 연구〉; 성균관대학교박사학위논문.

陳 平(1988), 〈論現代漢語時間系統的三元結構〉:《中國語文》, 第2期.

韓 蓉(2004), 〈“下來”, “下去”語法化過程考察〉:北京語言大學碩士研究生學位論文.

【中文提要】

‘下來’通過語法化形成的意義之間划分稍微不明确, 尤其同樣的‘V下來’結構出現歧義問題。‘下來’具有相當於時態標記的持續意義, 与‘下去’相比却限制極多, 使用頻率較低。分析結果顯示, 第一, 動詞的過程結構當中續段越長, 終點越強, 同質性越高, ‘下來’表示持續意義的可能性則越高。第二, ‘下來’与強調持續的狀語共現, 表示持續意義的可能性就更高。這一現象与語法化的斜坡有關。從空間域到時間域的隱喻投射背后有意義逐漸虛化的過程。因此‘下來’的完成意義与持續意義之間存在意義交叉的階段, 給‘下來’持續意義的確定造成一定的影響。

【主題語】

‘下來’, 語法化, 時態標記, 持續意義, 完成意義, 斜坡

투고일: 2013. 1. 15 / 심사일: 2013. 1. 20~2. 5 / 게재확정일: 2013. 2. 10